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이시도로스 수사

마태오 제16주일

시메온 의인, 안나 예언자

제3조, 조과복음 3

성 요한 크리소스토스 성찬예배에서

-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제2응송 / 164, B 157
- 제3조 부활 찬양송 / 82, A 213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찬양송 / 164, B 157
- 성당 찬양송
-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시기송 / 164, B 159
- 사도경 : 고린토 후 6,1-10 / 봉독서 257
- 복음경 : 마태오 25,14-30 / 118, B 58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이시도로스 수사

우리 교회는 가장 거룩하고 현명한 수도자 필루시오의 성 이시도로스(5세기)를 2월 4일 축일로 기념합니다.

성 대 포티오스께서는 이시도로스 성인에 대하여 ‘성직자와 수도자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성인을 찾아가 그의 빛나는 조언을 구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필루시오 산 근처에 있는 그의 수도원에서 많은 지도자들과 동족을 위해 글을 썼고 영적 조언을 주었습니다. 현재 성 이시도로스의 2천여 편

의 「서신」이 남아있습니다. 그 서신들은 지혜와 기쁨으로 가득한 그리스도교의 매우 귀중한 영적 유산입니다. 혹자는 수도 생활은 쓸모없는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 보십시오! 한 명의 참된 수도자가 당대에 그리고 현재까지도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성 이시도로스께서는 한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해의 새로운 다짐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 역시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지 여섯 달이 되어서다. 성모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하자 세례자 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즐거워 뛰어놀았다.(루가 1, 41-44) 이렇게 성령이 요한에게 임하시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영광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던 해에 요한을 찾아가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하느님 아버지의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마르코 1, 9-11) 이 순간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특별한 은총이 나타났다.

이러한 성령의 내려오심을 경험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확신을 갖고 죄의 용서를 위한 세례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결과 주님께서서는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루가 7, 26-28)라고 찬사하였다.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이는 죄를 용서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였다. 즉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선을 하며 의로운 생활을 다짐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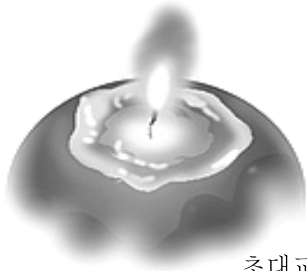
물로 받는 세례의 모습은 구약성서에서도 볼 수 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

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홍해를 건너 시나이 산으로 인도할 때 모세가 지팡이로 바닷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세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출애굽기 14,15-29), 여호수아가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후 이스라엘 사람들 중 사막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만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도 계약 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 강 물가에 발을 담그자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추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었는데(여호수아 3,13-17) 이 모습 또한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를 통해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상황을 알 수 있다. 먼저 주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창조하셨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내려오신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님께서서는 성령과 불의 세례 즉 건진성사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확인해 주셨다. 건진성사를 받아 내 안의 모든 낡은 것들이 죽어 없어져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늘 나라에 들어 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새해에는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새롭게 태어났을 때의 마음가짐으로 하느님과 화해하며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갖고 한해를 시작해야겠다.

▶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신현—빛의 축제

역사적 배경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날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이교도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날이 되었다. 새로이 세례를 받는 개종자들은 세례식이 이루어지는 동안 초를 들고 있었다. 이에 덧붙여서 이미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세례받을 때 들고 있던 초를 이날 다시 교회로 가지고 와,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믿음과 헌신을 새로이 하는 기회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신현 축일에는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이 불을 밝힌 초를 들고 있었다. 바로 이날 모든 교회는 빛의 바다처럼 되었다. 따라서 이날이 그리스어로 ‘따 포따’ (곧, 빛의 축제라는 뜻)라고 불리게 되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의 초는 세례받는 이가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교인들은 이 초를 세례를 받은 날이나 또는 밤중에 드리는 부활 예식 때 교회로 가져왔다. 세례의 초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 살고 죽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주었다.

정교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성당에 가 초로 불을 밝힌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다는 것과 그분처럼 우리도 또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빛을 발하는 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환하게 빛나는 세례의 빛을 가지고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소티리오스 대주교 출국

지난 1월 28일 피시디아의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과 아가티 수녀님이 터키 피시디아로 출국 하였습니다. 피시디아의 대주교이신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께서는 피시디아 지역 성당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을 대처하고 정리하기 위해 아가티 수녀와 함께 출국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건강과 빛을 내려주셔서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 사업이 되고 무사히 귀국 하시길 기원합니다.

■크리스토퍼 무어 신부 도착

지난 1월 31일(목)에 미국에서 크리스토퍼 무어 신부님이 사모님과 2명의 자녀들과 함께 한국에 오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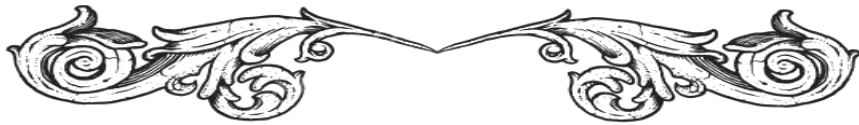
앞으로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에서 사목 활동을 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한국교회에 큰 힘이 되는 사목 활동을 전개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신데즈모스 수련회

지난 1월 26일~27일 이틀 동안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신데즈모스 겨울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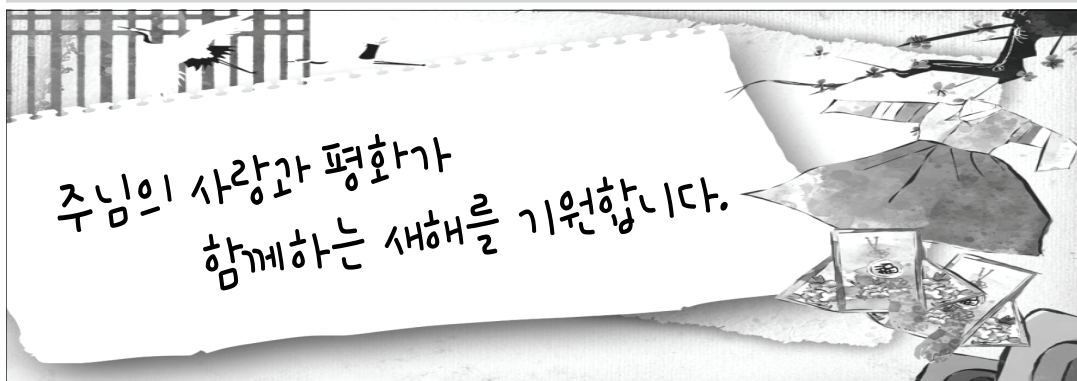
17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안토니오스 임중훈 신부님의 지도 아래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님과 함께 만과와 성찬예배를 드리고 영적 대화와 공동 식사와 친교를 나누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욱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길 하느님께 기원합니다.



주간 예식

. 2월 5일(화) 성 아가티 순교자 축일, 설날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설날 추도식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